

‘호수의 여왕’ 고진영 전성시대 ‘GO’



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왼쪽)이 포피스 폰드에 뛰어드는 전통적인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10언더파 우승 올 6개 대회서 우승·준우승 각각 2회...무서운 상승세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3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파72·676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기록,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고진영은 시즌 2승, 투어 통산 4승째를 달성했다.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달성한 고진영은 우승 상금 45만 달러(약 5억1000만원)를 받았다. 지난해 신인상 수상자 고진영은 올해 6개 대회에 나와 우승과 준우승 각 2회씩 기록했고 3위에도 한번 오르는 등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2004년 박지은, 2012년 유선영, 2013년 박인비, 2017년 유소

연에 이어 올해 고진영이 다섯 번째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 8개 대회에서 5승을 합작했다. 3라운드까지 김인경에게 1타 앞선 단독 선두였던 고진영은 2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고, 김인경은 3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3타 차로 달아났다. 5번 홀(파3)에서도 한 타를 더 줄이며 공동 2위권과 4타 차 선두로 치고 나간 고진영은 중·후반 들어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13번과 15번 홀(이상 파4)에서 '징검다리 보기'가 나오며 2위 이미향에게 1타 차로 쫓긴 것이다.

게다가 이때 이미향은 16번 홀(파4)에서 약 5m 버디 기회였다. 그러나 이미향의 버디 퍼트가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고, 고진영은 곧이는 16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다시 2타 차로 달아나 한숨을 돌렸다. 18번 홀(파5)에서 고진영은 약 4m 정도 거리의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자축했다. 우승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고진영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다른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한국 선수들이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저도 우승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고진영은 이 대회 특유의 '포피스 폰드(Poppie's Pond)'로 불리는 연못에 뛰어드는 우승 세리머니를 캐디 데이비드 브루커 등과 함께 했다. 고진영에 이어 이미향이 7언더파 281타로 2위에 올랐고 김인경은 5언더파 283타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올해 투어 신인상 후보 이정은은 4언더파 284타로 김효주 등과 함께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박인비는 7오버파 295타로 공동 68위, 세계 랭킹 1위 박성현은 4오버파 292타로 공동 52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진짜 실력 이제부터 ... KIA 반전 시작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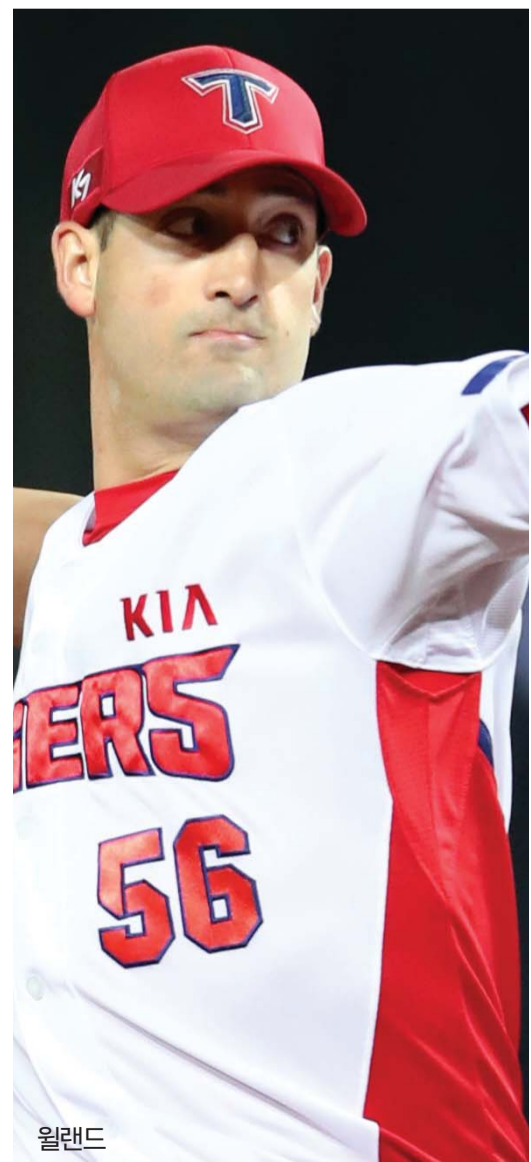
투·타 부진에 주전 대거 전력 이탈...시즌 5승 8패 8위 이번주 '홈런군단' NC·'끝내기 전문' SK와 맞대결 오늘 월랜드 선발...양현종·최형우 컨디션 회복 관전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우천취소로 하루를 쉬 KIA는 지난주 2승 3패의 전적을 내는데 그쳤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길에서 1승2패에 그쳤고, 안방에서 만남 키움 히어로즈와는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올 시즌 전적은 5승 8패가 되면서 8위로 내려앉았다. 투·타의 잇박자 속에 좋은 흐름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KIA는 2일 월랜드의 호투를 앞세워 4-1 승리로 한 주를 열었지만 타선의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연승에 실패했다. 3일 KIA가 9개의 안타와 3개의 볼넷으로 3점을 만든 반면 삼성은 3안타 4볼넷으로 6점을 뽑아내며 승리를 가져갔다. 4일에는 '대구 약세'의 양현종이 2이닝 7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일찍 경기가 삼성에 기울었다. 김주찬, 김선빈의 부상 말소까지 겹치면서 위기

를 맞았던 5일. 이번에는 예상을 깨고 '잇몸 야구'가 빛을 발하면서 6-4의 값진 승리가 기록됐다. 구준환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기의 짜릿한 결승 홈런까지 나오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았지만 6일에는 마운드가 흔들렸다. 대체 선발 황인준의 불안했던 출발 속 이민우와 이준영이 제구 난조로 진땀을 흘리면서 4-14의 대패가 기록됐다. 주축 선수들의 부진에 투·타의 잇박자까지 더해진 KIA는 새로운 한주 어려운 상대들을 만난다. KIA는 주중 NC 다이노스와 홈경기를 치른 뒤 문학으로 건너가 SK 와이번스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시즌 초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팀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안방마님' 양의지를 영입해 공·수에 무게감을 더한 NC는 나성범도 부상에서 회복해 지난 4일 가세하면서 '홈런군단'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NC가 14경기에서 23개의 홈런을 터뜨렸지만 KIA는 13경기에서 가장 적은 7개의 한방을 남겼다. SK는 '끝내기 명수'로 통한다. SK는 올 시즌 거둔 10승 중 5승을 끝내기 승으로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팀 타율은 0.228로 10개 구단 중 가장 낮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다. 마운드도 2.86의 평균자책점으로 버티면서 끝내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KIA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타격에 6.05의 평균자책점을 찍은 마운드로 어렵게 시즌을 풀어나고 있다. '해줘야 할' 양현종과 최형우의 성적이 중요하다. 양현종은 두 경기 연속 난타를 당하면서 올 시즌 평균자책점이 9.00까지 치솟았다. 이날당 출루 허용률은 2.07, 피안타율은 0.413이다. 월랜드가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는 가운데 양현종이 4번째 등판에서는 팀을 대표하는 투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4번 타자' 최형우의 결정력도 아쉬움이다. 최형우는 13경기에서 12개의 안타를 생산해내며 0.267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멀티히트는 4번에 그쳤고, 병살타로 물러난 경우는 3차례에 이른다. 무엇보다 득점권 타율이 0.188에 불과하면서 9타점에 머물고 있다. KIA는 지난 7일 비로 한 경기를 쉬면서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잘 나가고 있는 두 팀을 만나는 KIA가 '운용의 묘'를 살려 반전의 한 주를 보낼 수 있겠는지 주목된다. 한편 KIA는 9일 월랜드를 선발로 해 NC의 '신흥 점수합' 박진우와 마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포츠계 산불피해 돕기

프로야구선수협 2000만원 성금 MLB 강정호·LPGA 이정은도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이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성금으로 2000만 원을 강원도에 전달했다. 이대호(롯데) 선수협회장과 김주찬(KIA) 등 선수 이사는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표해 성금을 기부했다. 이대호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우리 프로야구선수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호 회장은 선수협 성금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재해구조기금에 기부했다. 지역 출신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후보' 이정은(대방건설)과 '빅리거' 강정호(피츠버그)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순천 출신의 이정은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으로 3000만 원을 기부, 산불 피해 이웃 돕기에 힘을 보탤다. 광주 출신의 강정호도 산불 피해민과 산불 진화 총력을 기울인 소방관을 위해 기부금을 쾌척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000만 원을 기부한 강정호는 소방관의 복리 증진과 권익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민간 비영리단체인 한국소방복지재단에도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